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4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올해의 남은 절반도 성숙과 보람의 시간으로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 절기입니다. 너른 논에서 농부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논의 잡초들처럼, 하늘의 빛과 바람을 가로막고 진리의 양분을 빼앗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차분히 응시하게 하시고, 얽힌 욕망의 넝쿨은 잘라 내게 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45. 시 103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다 함께

▲ 성경봉독 ····· 눅 13:6-9 ····· 1부:인도자/2부:주은경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Ⅰ. 은혜의 강물 ····· 마중물찬양대

Ⅱ.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청파찬양대

말 씀 ····· **시간의 열매** ····· 김기석 목사

거듭의기도 ····· 다 함께

특 송 ····· 새 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희망을 품은 손길이 있다면, 흔들리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큰 빛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직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지친 우리 마음에 새 희망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시간 동안의 애씀과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굳센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너 사람 낚는 어부 한번 해봐라

-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원주 탄광 지대와 제천·단양 지역 등 남한강 유역의 13개 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남한강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성과를 보이자 이번에는 광산촌으로 눈을 돌렸다. '막장'이라는 말이 광산의 용어이듯이,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광부들이었다. 탄광촌은 대부분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산중에 있어서, 유통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다 보니 생활필수품의 소비자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쌌다. 심지어 3배 이상 비싼 경우도 많았다.

광부들은 비싼 사채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힘들여 번 돈을 고리채로 뜯기는 일이 예사였다. 장일순은 이들을 돕고자 나섰다. 장일순의 부탁으로 태백광산에 파견되어 10년 넘게 광산신용협동조합운동에 헌신한 이경국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원주 시내에서 건축자재 장사를 잘하고 있는 저를 무위당 선생님(장일순)이 주교관으로 와달라고 부르셔서 가보니까 지 주교님과 함께 계셨어요. 무위당 선생님이 "경국아, 너 사람 낚는 어부 한번 해봐라. 광산에 가서 광부들 모시고 일 좀 해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구 명인데 거절하겠어요. 한 달 뒤 저는 장사를 접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광산으로 갔어요.

그때 태백 탄전에 20만 명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광부들을 설득해서 협동조합 교육을 시키고, 신용협동조합 15군데 만들고, 광산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생필품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소비조합 50군데를 만들었어요.

광산에 지학순 주교님이 건물을 크게 지어주셔서 소비자협동조합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 1층에는 광부들이 사용할 생필품을 잔뜩 싸놓고 15년 동안 협동조합운동을 했습니다.

…

신협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나갔는지 이경국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광부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 먹고 사 입는 것, 생필품들이 여러 유통조직을 통해 마을까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비조합의 원리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해 공동구매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섯 단계를 거쳐 마을까지 왔다면 세 단계로 줄이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신협을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소비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소비조합을 운영하면서 물건 값을 줄였는데 나중에는 소비조합연합으로 발전했어요. 광산소비조합협의회와 농촌소비조합협의회 등으로 말이죠.

신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77년에 협동조합운동은 3개 도 13개 시·군, 90여 개 농촌 마을과 10여 개 탄광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때에도 장일순이 중점을 둔 것은 교육활동이었다. 상담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교구교육원에 모여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신협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5년부터는 신협임원 교육과 실무자 회계 교육, 조합원 및 광산 부녀자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장일순은 협동을 주제로 한 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가 연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화합과 협동의 논리라는 시각으로 봐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삼웅, 「장일순 평전」(두레) 중에서

시론

서정주

바닷속에서 전복따파는 제주해녀도

제일좋은건 님오시는날 따다주려고

물속바위에 붙은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전복도 제일좋은건 거기두어라

다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두고 바다바래여 시인인 것을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고형은 구재원 권미정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나름 김명숙 김미숙 김승현 김수진a김영읍 김영호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정민 이혜령 김종성b서이순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태한 김필순 김현진 김형근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신후 마재국 손의나 문은지 박규석 박경선 박기원 이미영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준민 최광희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a방 민 방 준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성래 백원선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동우 서수진 서지온 소광섭 김숙희 신능수 심창현 안미숙 안미순 안종일 정현주 안홍숙 홍순구 오미숙 오민용 오은영 왕수명 유금주 유중희 윤성종 김윤정 윤수연 윤영주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서영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영미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용현 최연실 이우상 이계월 이윤범 나지선 이재훈 이한나 이행진 이호원 임고은 임광호 임선자 임성택 홍순위 임형욱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의림 장현희 정영우 김지윤 정현숙 주은경 지윤미 최승주 조호진 최영민 이상미 최옥분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최형민 최희영 추헌영 한나영 한양미 이진영b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권채영 홍복선 홍윤선 홍춘숙 황경순 황사라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구혜린 김 극 김숙희 김영란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김재영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노신후 박예림 서효진 신기호 오민용 유수진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은빈 은서 은진 이지하 이태석 이현죽 임종수 임혜진 장옥순 장옥순 전근우 정연경 채일석 한종윤 함정희 허희라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인석 이고임 한민

녹색꿈헌금 고희도 권미숙 윤미경 윤수진 이고임 이승지 최가윤 무명2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동호회 : 오늘 오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2. 태양광발전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주택,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발전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양재성 목사 010-4348-9004)
3. 신앙실천 : '불편해도 괜찮아' 때때로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너와 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안내

유아유치부	7월 7,14,21,28일	교회
아동부	8월 10~11일	팀수양관
중고등부	7월 20~21일	서울대공원 캠핑장
청년1부	7월 27~28일	세종청파교회
청년2부	8월 15~18일	천안단비교회

다음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습 3:9~13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곽권희	한양미	이범석
7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헌금위원	박유경	
	2부 영접위원	안홍숙 황현성 안종일 서정순 정현주 이오복				
	2부 헌금위원	권혁순 이형숙				
식당봉사	오늘	박영신 박미연 최미경 이미휘 고혜경 채옥춘 김종락 설규범				
	다음주	이현숙 정연경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김태한 임당재 홍윤선				
설거지봉사	4여선교회(오늘)	5여선교회(다음주)	커피봉사	2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